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중단입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 원만 회향



총지종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 중학생 150명, 초등학생 50여명이 까지 경북 영주 청소년수련관에서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여름학생 수련법회를 회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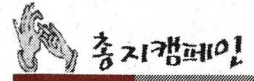
이번 수련대회는 첫째날 24일에 입재식을 시작으로 예절과 매너, 야간산행을 하였다. 입재식에서 우승 통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화염경이라고 하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중한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즐겁거나 즐겁지 아니한 것은 결국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 못해서 하는 것과 내

가 되어 뒷산을 산행하였다. 둘째날인 25일에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공부하였던 소수서원과 고려시대 목조건물의 대표적인 양식이 살아있는 부석사와 옛 조상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선비촌을 방문하였다. 오후에는 CTL(상호협동 팀워크 리더십)프로그램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통과 하는 ‘거미줄통과’, 한가닥의 줄에 모든 사람이 매달리는 ‘인간사슬’, 5명이 하나의 나무토막을 움직이는 ‘한마음’, 한 평인 널빤지에 모두 올라서는 ‘모두 올라서기’, 모두가 손을 잡고 후프를 통과하는 ‘후프통과’의 게임을 진행하면서 상호협동심을 배양하였다. 저녁에는 장기자랑 및 캠프파이어로 자신들의 기량과 재주를 마음껏 발휘하였다. 셋째날인 26일에는 폐회식을 끝으로 2박 3일의 수련법회를 회향하였다.

총지종은 매년 여름학생 수련법회를 진행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예정이다.



불교인의 현실 참여



종교는 그 특성상 포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정치의 논리를 순화하면서 계층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완화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적격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 특유의 사회비판 기능을 통해서 사회 개혁과 정의실현을 위한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종교인은 사회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모습은 외면한 채 자신의 세계에 안주하여 교세확장과 교파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종교인이 수행없이 현실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그는 이미 종교인이 아니다. 수행과 현실 참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종교인은 이 두가지 모두를 병행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회적 소임을 다하면서, 나아가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사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현실참여가 필요하다.

더욱이 불교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비현실 참여종교라는 비난을 들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교계의 현황을 봐도 불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 참여도가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족종교라고 자부하는 불교가 중생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승려 자신들의 수행만 몰두한다면 종교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중동지역의 분쟁이나 아프리카 기아, 난민 같은 범지구 문제에서부터 금번 우리나라 일부지방의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복구지원 문제같이 직접적인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한 현실뿐만 아니라 비록 불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자연환경보존이나 사회부조리 방지, 정의사회 구현 같은 현실적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폭넓게 간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발원하는 청정 불국토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 일 것이다.

이 달의 종조법설

자기의 마음을 스승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과 안락과 진정한 지혜의 법을 얻어서 모든 번뇌를 끊고, 능히 악한데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의 길이 지혜 있는 참스승이 되어서 원만정당한 과보를 속히 증득하리라.

불교총지종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메흠의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종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진언의 세계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총지종의 불단 중앙에 음마니반메흠의 본존과 오른쪽은 중대팔염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고 생명의 성장과 탄생을 의미하는 태장계만다라, 왼쪽은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 금강계만다라.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풍경소리

아름다운 관계



별은 꽃의 꿀을 따지만 꽃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을 도와줍니다. 사람들도 남으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면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만을 취하기 급급하여 남에게 상처를 내면 그 상처가 썩어 결국 내가 취할 근원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꽃과 벌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엔 삶의 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장용철(시인)

가슴을 적시는 샘물

무성한 숲만이 온갖 새들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굳게 가슴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스함이 없는 가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



것처럼 목마르고 힘겨울 것입니다. 작은 실개천 하나가 넓은 초원을 두루 적시듯, 지치고 힘든 나그네에게 한 모금의 샘물은 곧 목숨의 근원이 됩니다. 따스한 마음은 세상의 가슴을 적시는 샘물입니다.

-김영희 (시인)

좋은 벗



어느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다. "어떤 사람이 객지에서 가장 좋은 벗입니까?"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집안에서 가장 좋은 벗은 누구입니까?"

"정숙하고 여진 아내는 집안의 가장 좋은 벗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벗은 누구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일가친척이니라." "그렇다면 미래의 가장 좋은 벗은 누구입니까?" "평소에 닦은 선행이 미래의 가장 좋은 벗이니라"

-『잡아함경』중에서

이달의 명상

내면에 대한 인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변화를 가져온다. 그때부터는 이유 없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이유 없이 타인에게 화를 내는 일도 없어진다.

내부적인 안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이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자신이 직접 불화의 원인이 되는 일은 없어졌지만 타인으로 인한 감정문제를 참아내기에는 아직 멀었다.

비록 내가 먼저 불을 지르지는 않지만 외부로부터 불씨가 던져지면 또 다시 견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진보가 필요하다. 그것은 자아에 대한 한 단계 깊은 이해이다.

두 번째 진보는 상황을 바꿔준다.

과거에는 외부적인 감정문제에 너무 민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불은 태울 것이 없으면 불붙지 않게 되어 있다. 타인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해도 그것에 손상되어질 나의 감정이 평온해졌으므로 누구도 나를 손상시킬 수 없다.

이어서 세 번째 진보가 기다린다. 그것은 나로부터 변해가는 주위를 향한 평온함이다.

난롯 불은 방안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향기로운 과일들은 온 방안을 달콤함으로 채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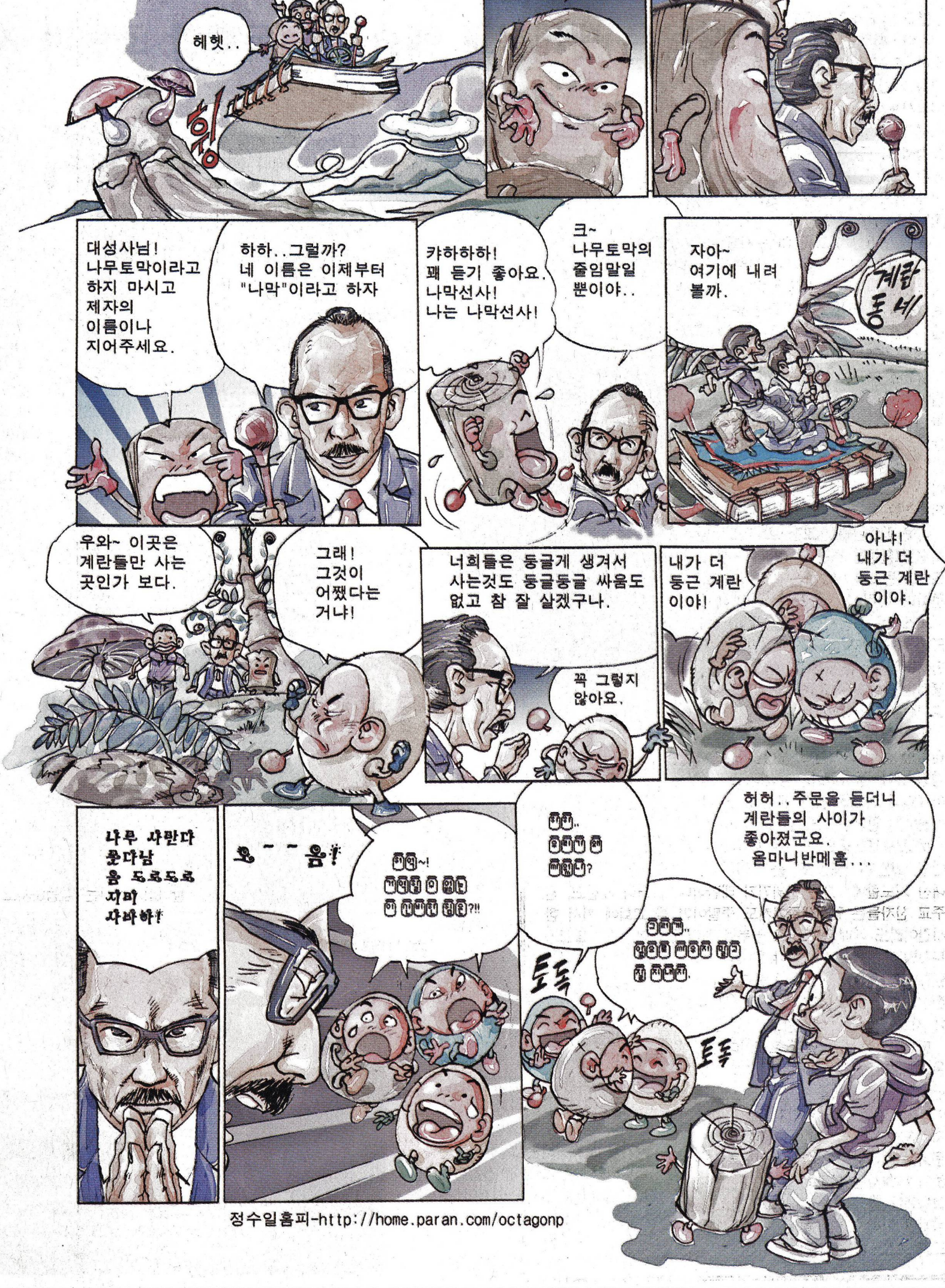
자아의 이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 온다.

삶의 변화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일고

~전수경편 제 6화~



다 향

茶香의 향기를 찾아서 멀리서 나를 꽃이되게 하는 이여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 작설), 보이차, 오롱차, 고급자사호, 차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총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한국불교미술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 탑

우리나라 불탑은 세계불교 예술사상 독특한 조형미 지녀



시작한 도량사상과도 더욱 밀접한 연관을 지니면서 지세나 형식에 따라 산천을 보호하려는 성격 이래 수많은 불탑이 건립되었다는 사실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불탑 건립의 한국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탑의 상징성

탑은 탑과의 줄임말로써 문, 무, 종각, 법당, 회랑, 석등과 더불어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조형물로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지닌다. 탑이 주는 일반적인 느낌은 불교라는 종교를 알리고 사찰을 장엄한 장소로서 경의심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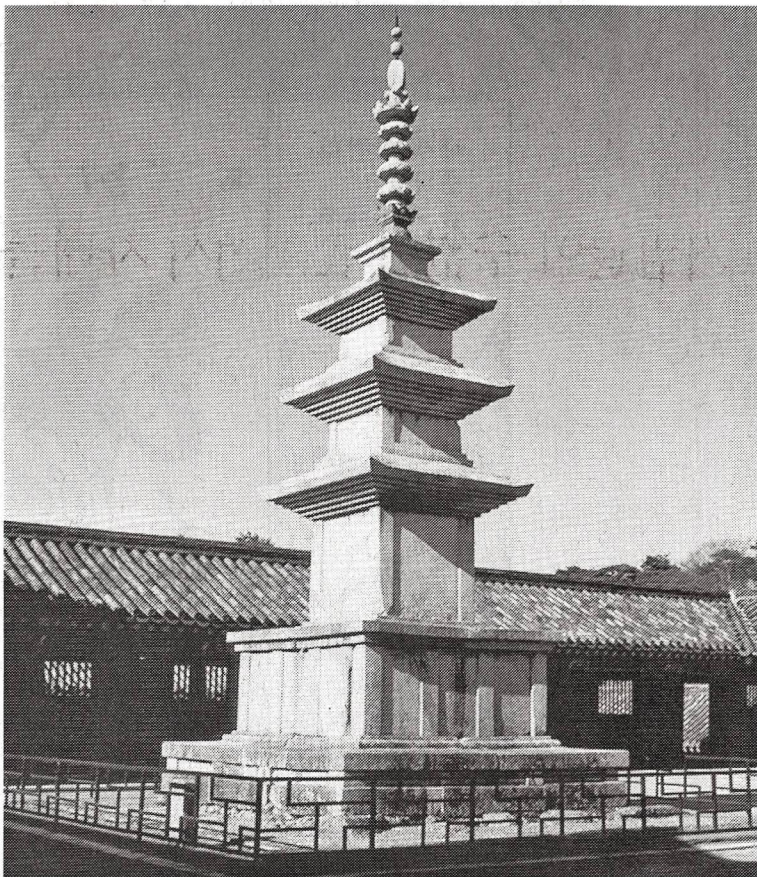
불교의 유형, 무형의 모든 문화적인 자산들이 그렇듯이 중생구제라는 불교 본연의 사명의 내포와 인간 심성의 정화 내지 구원과 같은 불교 본질적 모습을 파악하며, 불교의 유형, 무형의 상징물에 담긴 진리, 내지는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탑과 또한 진리 표현의 또 다른 방법인 동시에 오늘의 불교를 있게 한 모태이며 불교 전통의 확

립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불교 교리의 발전과 더불어 탑과의 신앙도 변해진다. 탑과는 지역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 각국의 불교 문화권에서 탑은 여러 형태를 지닌다.

인도에서는 북방형 즉 그릇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이다. 이에 비해 중국을 위시한 북방불교 계통의 불탑은 한결같이 목조 누각과 같이 층수를 지닌 여러 층의 탑으로 전개되었으며 개념 또한 공덕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불탑은 세계 불교예술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불탑이 지닌 뛰어난 예술적 감각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서민의 애환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최초의 석탑인 백제의 미륵사지 탑은 백제의 미술문화가 매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백제인의 오랜 고심과 연찬을 통하여 탄생된 그야말로 한국 미술사상 초유의 석탑임을 알게 한다.



1. 탑의 어원과 유래

탑은 탑과(塔婆)를 줄인 말로 원래는 범어(梵語; Sanskrit)의 'Stupa' 또는 파리어(巴利語; Pali)의 'Thupa'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탑과는 불교발생과 더불어 석가모니의 유해를 다비(荼毘; 火葬)하였고 유골인 사리(舍利)를 봉안하면서 불교적인 조형물이 되어있다.

탑과의 의미는 '신골(身骨)을 담고 흙과 돌을 쌓아올린 불신골(佛身骨, 眞身舍利)을 봉안하는 묘(墓)'라는 뜻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로 만들어진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부처님의 진신 사리 대신 불경이나 불상 등의 법신 사리를 봉안한 탑도 건립되었다.

사리를 봉안한 탑을 '스투파'·방분(方墳), 원총(圓塚) 또는 고현처(高顯處)라고 하고 사리가 없는 탑을 '차이티야'·영묘(靈廟), 정처(淨處), 복취(福聚)라고 구별한다.

2. 탑의 건립 목적

불탑 건립의 첫 번째 목적은 사리신앙에 있다. 그래서 탑은 불상과 더불어 불교의 예배대상으로 널리 추앙되었다. 즉 불사리를 지닌 불탑과 부처님의 품격을 형상화한 불상이 가람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이른바 당탑가람(堂塔伽藍)을 형성하였다.

불탑의 건립은 호국·호법과 같은 시대적 상황 그리고 종교적 동기와 연관을 맺으며 전개되었다. 이러한 목적은 곧 불탑건립의 외형적 동기를 부여해준다. 예를 들어 황룡사 9층목탑의 경우 삼국통일의 염원을 담아 건립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되며, 신라의 감은사의 창건 또한 왜병을 진압하고 국가를 보호하려는 호국적 발원에서 출발되었으며, 이곳에 건립된 3층석탑은 삼국통일의 기념비적인 쌍탑장엄을 이룩하였던 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탑의 건립은 신라 말기부터 일기

총기동의보감

편두통



김장규 원장

편두통은 혈관성 (vascular) 두통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인류사회가 시작될 때부터 알려졌던 병이며, 어원은 'Hemicrania'라는 희랍어에서 유래한다.

편두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생긴다. 미국의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전체 여자의 15-30%, 남자의 3-13%가 편두통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연령에서도 편두통을 관찰할 수 있는데 성별차이가 약 5% 정도의 발생률을 보인다고 한다.

환자마다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다르며, 증상도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환자들은 두통이 경미해 아무런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들은 심한 두통으로 일상업무는 물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

편두통, 혈관성 두통 남녀노소 누구나 생겨 심한 두통으로 일상 업무와 식사도 못해 고통

증상은 재발성, 발작성 두통과 함께 다른 일반증상(식욕부진, 오심, 구토, 눈부심) 또는 신경학적 증상들을 동반하는데, 특히 두통은 특징적으로 일측성이고 박동성이다. 그러나 흔히 약측성 두통일 수도 있고 박동성이 아닌 '칼로 찌르는 듯 날카로운' 혹은 '쥐어짜는 듯한' 두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

두통과 동반되는 신경학적 증상은 다양하며, 대부분 전구증상 (aura)이 나타나거나, 전구 증상으로는 갑작스런 시력장애가 가장 흔한데, 대체로 4-60분간 잠점 (visual scotoma), 시력감퇴, 환시 (visual hallucination)가 지속된 후 앞서 기술한 두통이 시작되며, 때로 이러한 전구증상만 단독으로 계속될 수도 있다.

다른 국소 신경학적 증상으로서 편측마비, 감각장애, 실어증, 현기증, 의식장애 등이 편두통 환자의 10-20%에서 동반된다. 이러한 국소 신경학적 증상은 두통 발작 때마다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증상이 동반되거나, 두통이 가라앉은 후에도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면 뇌졸중 등의 다른 원인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편두통을 실험실 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편두통의 진단은 철저하고 자세한 병력청취에 의존하여야 하며, 유사한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기질적 질환을 반드시 제외한 후에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편두통은 흔히 심인성 또는 긴장성 두통과 결합된 복합성 두통으로 나타날 수 있어 환자가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서 시간을 두고 관찰한 후에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죽비소리 선역의 어려움과 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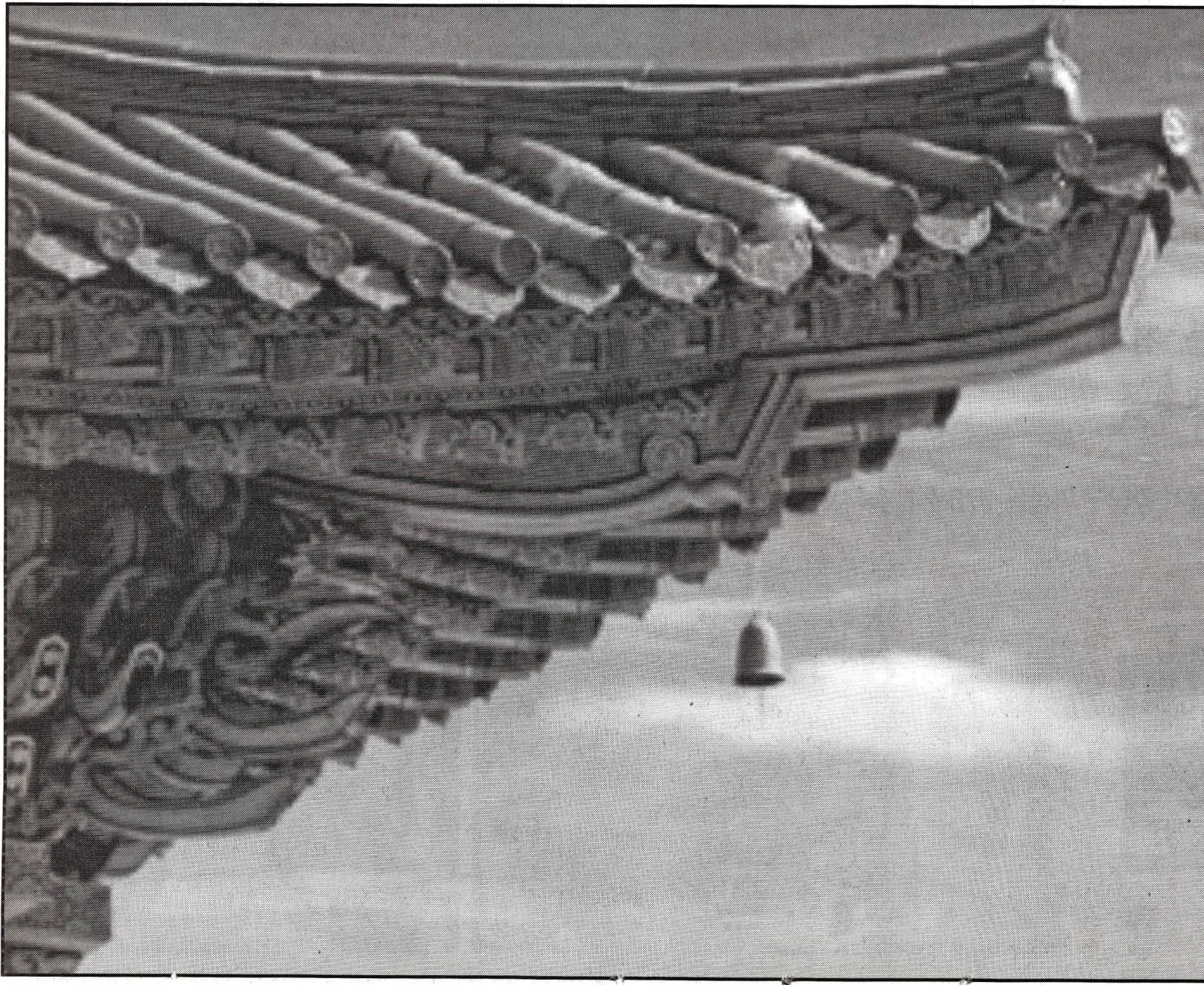
나쁜 행은 제 몸을 위해롭게 하건만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행하고
선한 행은 제 몸을 편안하게 하건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렵다 생각하네

악을 행하면 악의 과보 받는 것
마치 괴로움의 종자 심는 것 같나니
악을 지어 스스로 그 죄를 받고
선을 지어 스스로 그 복을 받는다.

거룩한 진인의 가르침대로
바른 도로써 몸을 살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질투하면서 악이라 한다.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무르익는 법이니
그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다.
선을 행하여 선의 과보 받는 것
마치 달콤한 종자 심는 것 같나네

『법구경, 중에서』



그동안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불우한 교도가정에 지원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름다운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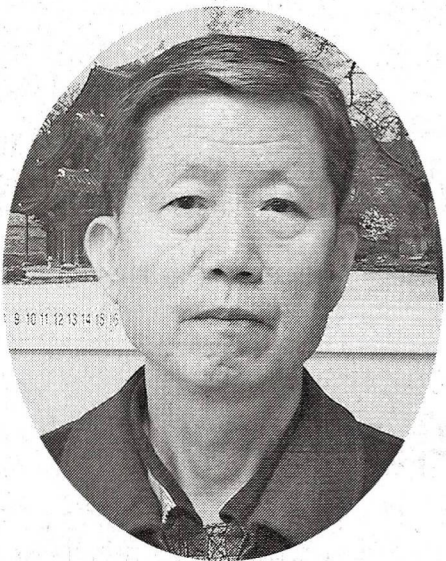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전화 : 02)552-1080

세계기행

이인성 각자의 세계여행

중국, 장가계와 원가계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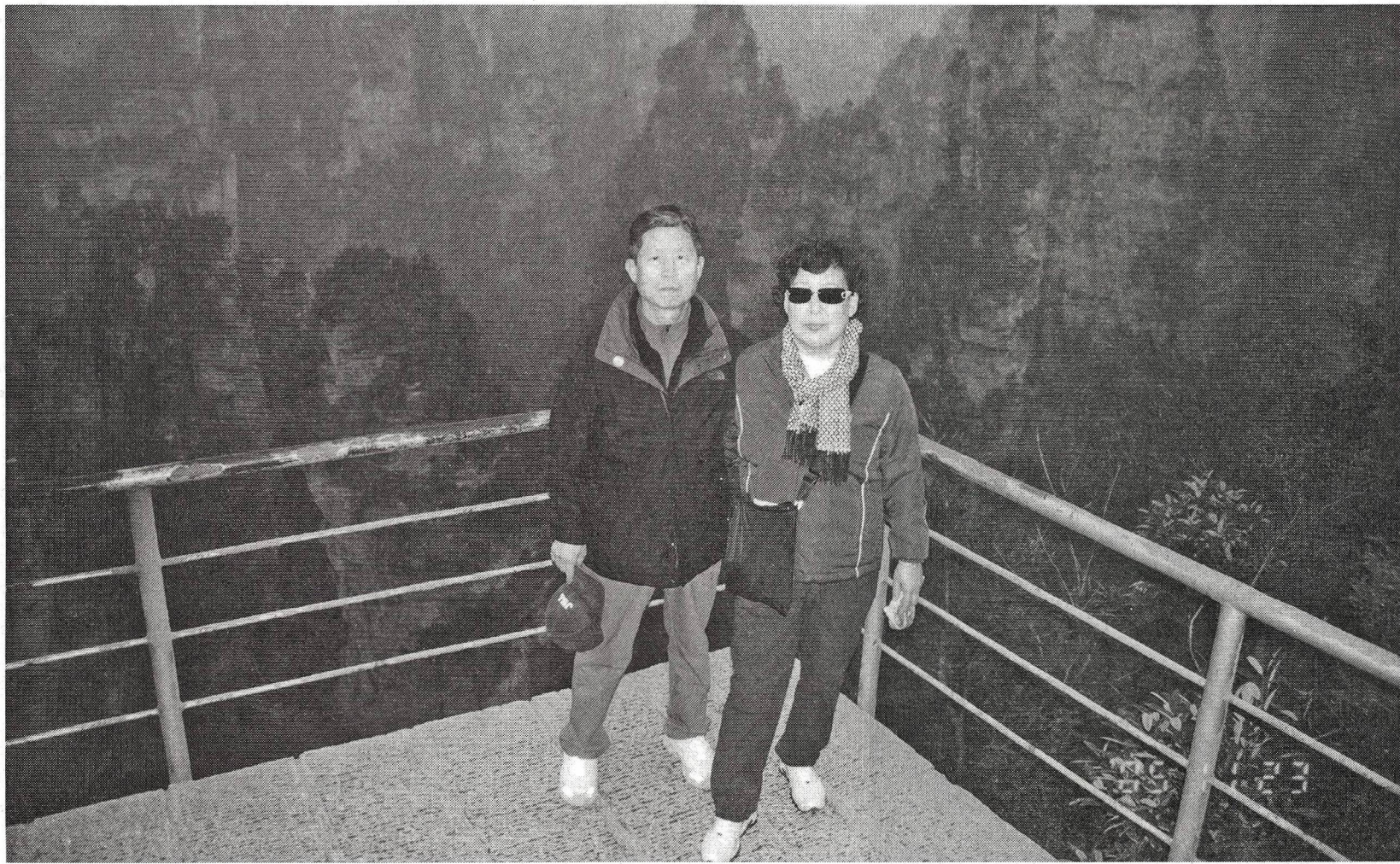


이인성 각자

2005년도 추운 겨울철의 문턱을 갓 넘어서 11월 중국의 명산 장가계, 원가계를 방문했다. 11월 21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른 아침인 07:50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항공기는 직항로를 이용해 중국 장사에 09:40분에 도착했다.

장사 공항에 내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관광버스와 관광가이드였다. 가이드는 교포 3세로 이름은 이국화였다. 자기 자신을 소개한 가이드는 제일 먼저 '운전기사: 따개, 아내: 씨팔, 수고했습니다: 신클라, 고맙습니다: 쉐쉐, 얼마입니까: 쉐우 쉐우 쉐우, 너무 비싸요: 하이 꾸빌라, 싸게해 주세요? 팽이디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쉐우 딸라, 식사하셨습니까? 쉐팔로마의 간단한 중국말을 가르쳐 주었다.

가이드는 "장사지역에는 4대 강, 상강, 원강, 이화, 즈강강이 있는데 이강들은 동정호로 들어간다. 양자강 이하를 남방, 양자강 이상을 북방으로 불린다. 중국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총 9년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중국인은 죽을 때까지 음식 맛을 다 맛 볼 수 없고, 땅을 다 밟지 못하고 글을 완전히 배울 수 없다. 13억 인구 중 3억이 부자이고 인구는 전세계의 3분의 1, 땅은 전 세계의 9%, 호적에 올라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인구수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아파트를 보면 5층 이하는 20년 전 건물이고, 7층 이상은 15년 전 건물, 15층 이상은 10년 전 건물, 20층 이상은 5년 전 건물로 보면 된다. 장사시는 인구 580만으로 연평



장가계는 흠에 묻혀 사는 토가족이 70%로 관광지로 지정
춧대바위 같은 기암들이 수없이 늘어서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장가계시는 원래 대용(大庸)이었는데 1994년 장가계시(張家界市)로 이름을 바꾸었다. 마치 말레이시아의 코타 키나바루 처럼...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은 3억8천만년 전 바다였었는데 조산운동과 침식과 풍화작용 등으로 조성된 면적 264평방km, 최고봉은 해발 1,518m로 '중국산수화의 원본'

립길, 왼쪽은 황석재(黃石寨), 오른쪽의 금편계(金鞭溪)로 향한다. 빼죽 빼죽한 봉우리들이 좌우로 늘어진 계곡의 평탄한 길을 걷는다. 금편암, 신용호편(神鷹護鞭)-벽산구모(峭山救母, 불륜 죄로 바위에 갇힌 어머니를 아들이 구했다)-장수천(長壽泉)-문성암(文星岩)-쌍귀타계(雙龜探溪, 거북이 두 마리가 시냇물을 바라봄)에 있는 매점에서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축인다. 원가계 쪽인 삼도구(杉刀溝) 갈림길을 지나 자초담(紫草潭)-천리상회(千里相會, 남녀의 형상화)-도어담(跳魚潭)-안쪽에 장량묘(張良墓)가 있는 원양계(鴛鴦溪)의 합류점까지 7.5km의 금편계 계곡 길을 걸었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십리화랑(十里畫廊)의 협곡을 관광전차를 타고 삼자매봉(三姊妹峰) 등 봉우리를 관람하고 돌아온다. 오후에는 인간요지(人間瑤地)라고 말하는 보봉호(寶峰湖)를 본다. 해발 430m에 위치한 평균 수심 72m, 길이 2.5km, 면적 46만 평방km의 인공호수다. 유람선을 타고 가니 바위 밑의 조그만 배에서 꾸냥이나 노래를 불러 준다. 뱃사람을 홀리는 로렐라이의 요정인가?

선녀바위, 두꺼비바위, 공작새바위 등을 유람선으로 돌아보고 인공 폭포인 보봉비폭(寶峰飛瀑)을 거쳐 버스로 황룡(黃龍)동굴로 이동한다.

주차장에서 동굴입구까지 가는 데 노점상이 즐비하다. 서로가 "천원!, 천원!" "짜다짜" 하고 외치는데 무슨 물건 파나? 하고 궁금해

서 고개를 돌리면 여럿이 외쳐대니 아마 "천원,천원" 하고 잡포대도 할 것 같다.

황룡동굴은 거대한 석회암동굴로 총 길이 15km, 상하 4층, 수직고도 160m에 이르는 거대한 돌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

물 흐름의 출구를 막아 소형 유람선(동력은 축전지)도 10여분 타고 이동한다. 길은 거의가

역원이란다. 종같이 생긴 용왕보좌(龍王寶座)는 높이12m, 상부직경 2.5m, 몸통둘레 18m로 중간에 폭 패인 곳은 꼭 부처님을 모신 것 같다.

두시간 정도 지나 동굴을 나오니 저녁 파장, 노점상들의 "떨이 천원!"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주차장에서 시끄러운 버스의 뒷자리에 앉아 호텔로 돌아 왔다.

11월 24일에는 해발 1,280m 황석재에 케이블 카를 타고 이동하였다. 장가계 사람들이 옛날에는 20리 길을 무료로 짐을 들어 주었으나 관광지로 바뀌고 난 후 인심이 각박해졌다고 한다.

높이가 백장이나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백장협이란 골짜기가 있는데 명나라때 스스로 천자라 이름 붙이며 수하 5만명을 거느리고 주원장의 15만 군사와 싸우다 패배하자 백미를 타고 떨어져 죽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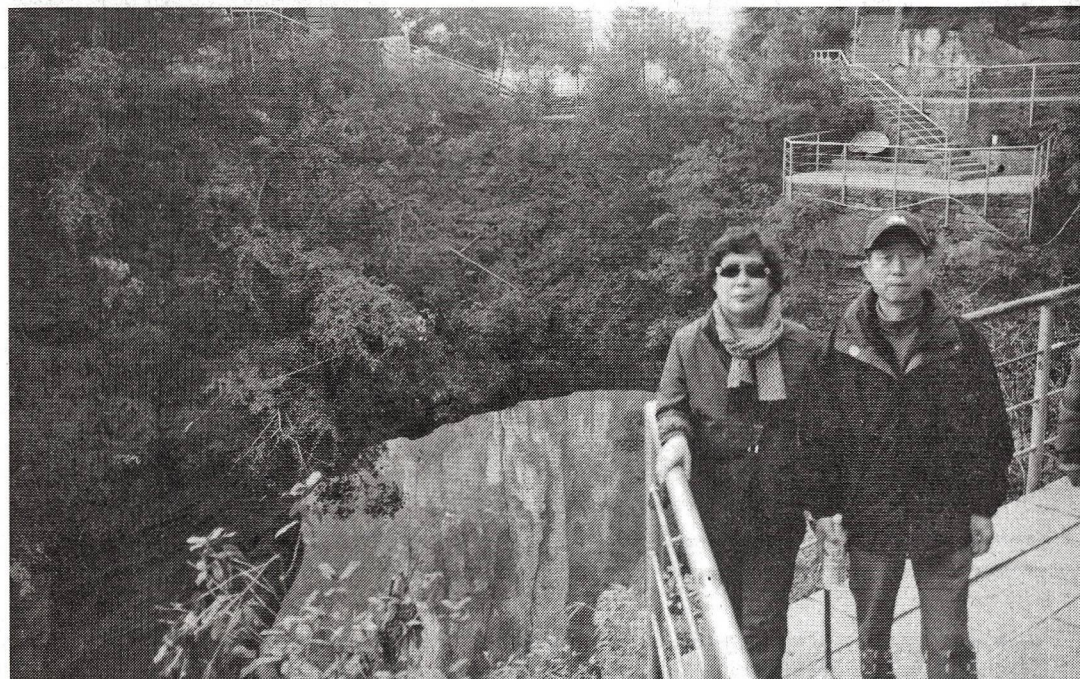
원가계(袁家界)를 가기 위해 우선 천자산(天子山, 1,240m)의 전장 2,084m, 고도차 690m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왼쪽의 기암들을 본다. 케이블카를 내리니 바로 하룡공원(賀龍公園), 중국 10대 원수(元帥)중의 한명인 이 고장 출신의 하룡 장군을 기리기 위해 국가 삼림공원으로 지정하고 강택민의 글씨가 음각된 동상을 세워 놓고 그가 사용하던 소련제 T-34 전차까지 전시하며 하룡 장군의 공을 기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착잡한 마음을 안고 주위 경관을 본다.

빼죽한 암봉 위에 소나무가 자라 붓을 거꾸로 세워 놓은듯한 어필봉(御筆峰)을 보고 경내 버스에 올라 도착한 천교천정(天橋餐廳),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간판의 글씨가 한자(漢字) 반, 한글 반이다.

원가계는 산 중턱의 보도를 타고 가면서 기암들을 중턱에서 바라보거나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경치이다. 장가계가 계곡에서 큰 봉우리를 올려다 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귀망천(神龜望天)에서 깊이 수백미터는 된 직한 계곡을 건너 바라다 보이는 춧대바위 같은 기암들이 수없이 늘어서서 서로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조금 더 걸어 미혼대(迷昏臺)에서 다시 기암들을 보고 매점에 도착하니 지금 본 곳이 '미혼대' 인지 '혼미대' 인지 혼미해져서 헷갈린다.

마지막 구간인 백룡(百龍) 엘리베이터를 타



군 17도,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길다"고 한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은 일행은 송나라 4대 서원중의 하나인 악골서원을 관광하고 화경호텔에 투숙하고 짐을 풀 뒤 장사시를 구경하였다.

11월 22일 시인 도연명이 인간선경(人間仙境)의 세외도원(世外桃源)이라 극찬한 도화원, 풍경구 진인, 우선교, 도화계곡을 구경하고 장가계로 이동하던 중 지심의 문, 용광동을 관광한 후 백장협 호텔에 투숙하였다.

중국은 56개 부족 중 82%가 한족이고, 18%는 55개 민족(전체면적의 60%)이다. 장가계는 흠에 묻혀 사는 사람인 토가족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추장, 순대, 찰떡을 즐겨 먹고 옛날에는 산적 생활을 하였으며, 82%가 관광지로 지정 되어 있다. 물가가 싸고 등소평이 화장제도를 시행했으나 장가계는 매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풍속은 남자가 사람을 고백할 때 발과 노래로 하고, 남자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여자는 석달 열흘을 울고, 토가족 우두머리인 토사는 남자를 데리고 술, 자수, 차를 가지고 여자 집으로 가고, 총각은 벼취, 팔찌, 검은 천 7자를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준다.

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1982년 국립공원으로 1992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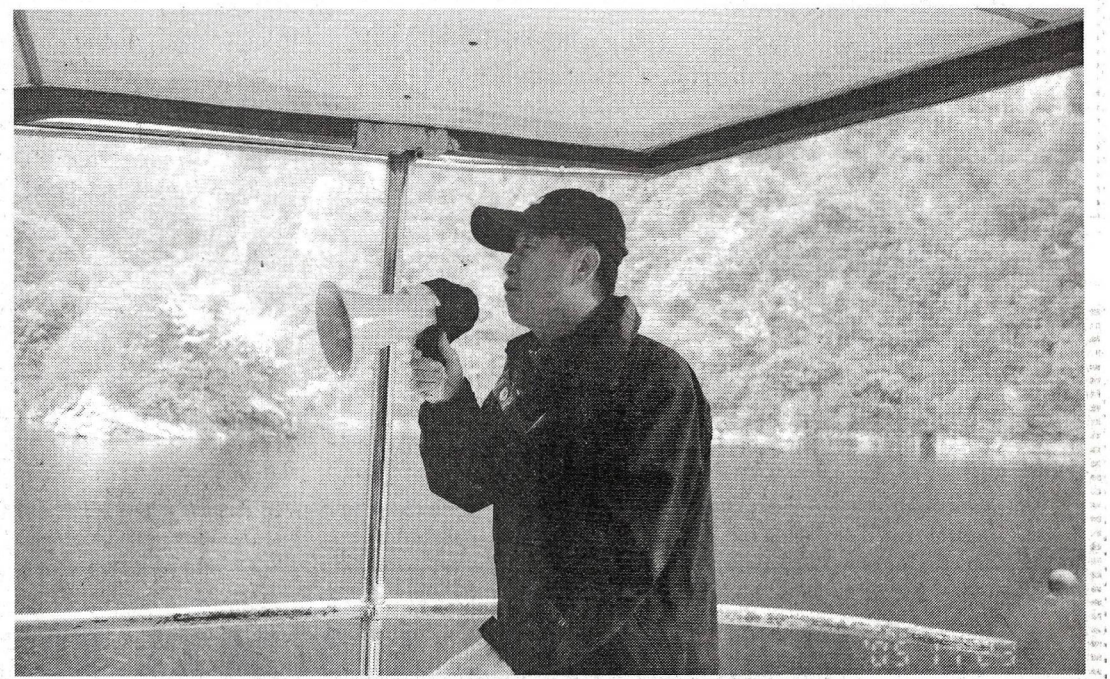
일교차가 20도 이상이 되어야 단풍이 잘 드는데 장가계는 단풍이 잘 들지 않는다. 작년에 눈이 왔는데 23년 만에 처음으로 왔다고 한다. 호수 주변에 두꺼비 바위가 있는데 정월



대보름 5분간 만 달이 비춘다. 규문암(關門岩) 앞의 갈



은 보험금이 우리 돈 160



물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힘들어 하는 여자도 있다.

뿌리는 약한데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 너무 비대해서 쓰러진 석순도 있고, 정해신침(定海神針)이란 높이 19.6m의 석순

고 326m를 하강한다. 처음 잠간 동안 앞쪽의 암봉들이 조금 보이더니 금방 얼굴 속으로 들어간다. 내려서 넓은 공간에서 앞을 보니 기암들이 병풍처럼 앞을 가로 막고 있다.

관광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이 가게 '만경대 전시관'에 들렀다. '수놓이', '술, 한약'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 진열, 공간 등 모두 초라한 모습이며, 정면 양쪽에는 '정일화', 다른 벽면에는 주로 풍경화인데 예수님, 부처님, 최후의 만찬을 수놓은 그림도 있는데 상품설명하면서 은근히 정치적인 색채가 묻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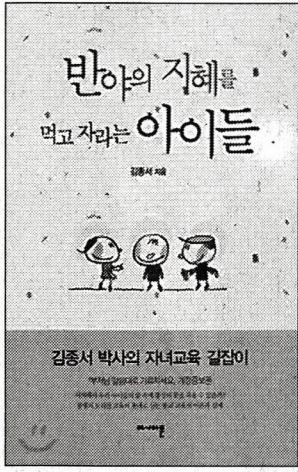
장가계의 부족인 토가족의 명절은 3월 15일 우황절로 소를 휴식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인다. 토가족은 소를 잡아 먹지 않는다.

4월 15일 청명, 5월 15일 단오, 6월 6일은 토가족의 이상인 황대권을 기념하는 날이며, 자기 조상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7월 7일 칠석에는 여자가 먼저 3곡의 노래를 부르고, 남자가 3곡을 부른다. 양력으로 8월 15일은 도둑질하는 명절로 남의 집에서 호박을 도둑질한다고 한다.

이달의 추천도서

반야의 지혜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의 만남



김중서 저 / 여시이문/ 정가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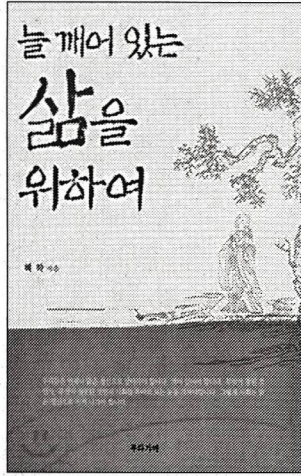
불자의 길을 걷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일까? 내 자녀에게 잠재적 가능성으로 숨어 있는 불성의 씨앗을 알게 하고, 맛있게 하고, 싹 틔워서 열매를 맺도록 촉매가 되어주는 일일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시절, 한암 대종사, 탄허 대선사님을 뵈고 큰 감명을 받은 이후 평생을 불법과 교육학의 접목에 고심해 온 원로 교육학자의 자녀교육 지침서이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불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는 김중서 박사는, 개인주의와 가족이 기주의, 물질 위주의 사고가 팽배한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돌려놓을 수 있는 비방으로 '생활 속의 불교 교육'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인간다운 삶의 질은, 자신의 타고난 잠재 능력을 얼마나 실현시켰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자아실현 중에서도 최고, 최상위에 있는 것이 종교적 자아실현이라는 그는, 개인의 능력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하신 부처님처럼 우리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각자의 개성을 꽃피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이란 어떤 기대의 제시를 받고 이를 확신하면 제시된 기대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기 충족 예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현실적인 적용 방안, 오늘날의 어른들에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녀 및 학생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들, 물질 위주와 쾌락 위주의 사회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주체성의 확립 방안 등, 저자 스스로 평생토록 매달려 온 '반야의 지혜를 삶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실천적인 교육법'이 제시되고 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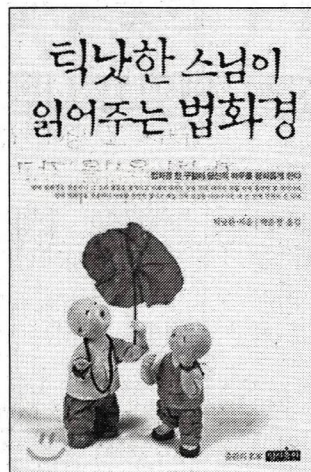


혜학 저 / 부디가야 / 정가 9,000원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깨어 있기로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들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살고 계신 혜학스님의 법문들을 모아 만든 <늘 깨어 있는 삶을 위하여>는 스님의 미소처럼 자상하고 은은한 향기가,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는 맑은 혜안이 가득하다. 또한 어지러운 삶에서 눈 감고 귀 막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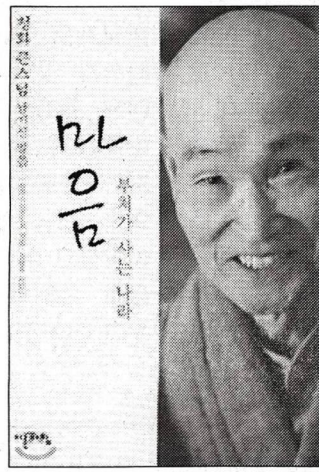
틱낫한 저 / 명진출판 / 정가 10,000원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고, 그러므로 누구나 부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불교의 가장 근원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 '법화경'. 법화경은 불교가 여러 갈래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기에 등장하여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이끌

었던 대표적인 포용의 경전으로 오래도록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틱낫한 스님이 안내하는 실용적인 법화경 안내서로, 틱스님. 특유의 쉬운 언어와 아름다운 비유, 그리고 현대인의 내면적 갈등을 불교적 가르침으로 잘 접목시킨 것이 특징.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화경을 크게 '역사적 차원'과 '궁극적 차원'으로 나누고, 첫 번째 장에서는 싯달타가 태어나고 자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역사적 차원에서, 두 번째 장에서는 생사, 주체와 객체 같은 모든 이원론을 넘어선 진정한 실재를 궁극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실천의 차원'을 덧붙인다. 사랑을 실천한 관세음보살, 자기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힌 약왕보살, 낮은 자리에서 끝없이 이타행을 실천한 지장보살 등을 통한 이타심과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자기 안의 평화를 복원하는 길임을 깨닫게 한다.

마음 : 부처가 사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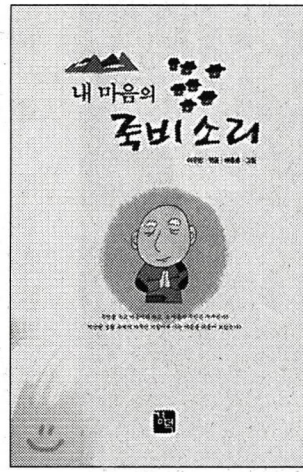
청화스님 저/김영주 사진 / 이른아침 / 정가 12,000원

"수행정진을 하다 보면 혼자서 여러 끼니를, 해먹기가 우선 귀찮다. 부처님 이전부터 오후불식의 수행은 있었던 것이고, 밥을 여러 끼 먹는 것은 복잡한 속세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본래의 인간은 하루 한 끼로도 충분하게 되어 있다. 나는 이를 믿고 실천했을 뿐이며, 적게 먹으니까 몸의 기운이 더 맑고 좋아진다. 80이 되어서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 수행자라면 마땅히 배부름을 구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한다." --- 본문중에서

지난 2003년 11월, '금생 세연이 다했으니 이제 가련다'는 말씀 한조각 남기고 홀연히 입적하신 청화스님. 스님은 50여 년 동안의 좌좌불와와 일종식, 생과 사를 넘나드는 토굴에서의 고행수도, 그리고 현대 철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으로 불교사상의 화풍과

일원화를 주창하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불려왔다. 이 책은 스님이 태안사를 중창하면서 시작한 대중 법문의 초기 법문에서부터 가장 최근 법문의 영혼을 위로하고 올바른 삶의 방편들을 제시한 비교적 쉬운 법문들만을 가려 뽑은 것이다

내 마음의 죽비소리



이우빈 역/배중훈 그림 / 경덕출판사 / 정가 9,500원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이 곧 거대한 법당임을 느낀다. 마음을 놓아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부처님의 이치 가 아닌 것이 없다. 이 책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곧 수행의 한 방편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마음을 비우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만큼 쉬운 일도 없다."

변호사 배중재 씨의 표현처럼 이 책은 생활 속에서도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단아한 책이다. 이 책은 평범한 생활 속의 참선을 몸으로 실천하며 느낀 여러 가지 단상들을 그림으로 옮긴 배중훈 씨의 짙은 만화이다 그 그림에 잘 어울리는 경전 속의 경구들을 실어, 보고 읽고 생각하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어쩌면 난해하기도 하고 '생동감'도 한 경구나 공안들이 짧은 글과 단아한 그림 속으로 무난하게 녹아 내려 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지쳐가고 있다. 그것은 경쟁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불교의 효용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나 돌과 쇠와 나무의 부처는 이미 가치가 없다. 불교의 가능성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과정의 투명함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살피며 더듬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의 목표는 평화이다. 정신의 적멸 위에 세상을 올려놓는 것이다.

수행이 중요하다지만 그것이 오직 무거운 것일 때는 거기에 매달려 힘들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무게의 수행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다만 그것을 쫓고 쫓아오는 자신의 문제로 감당할 수 있게 쉬지 않고 지켜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동시대의 수행입을 이 책이 가르치고 있다.

이달의 생활요가



물구나무자세



요가 아사나(자세) 중 '아사나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자세는 몸과 마음에 가장 많은 효과를 주는 동작 중의 하나이다.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장애들, 특히 심장질환, 순환기 계통과 혈압 이상 등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기억력, 집중력, 감각기능이 향상되며 자연스레 깊은 호흡으로 산소가 공급되어 머리를 맑게 한다.

이 자세는 머리와 양 팔꿈치로 삼각형을 만들고 깎지 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받쳐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선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것은 목이 많이 약한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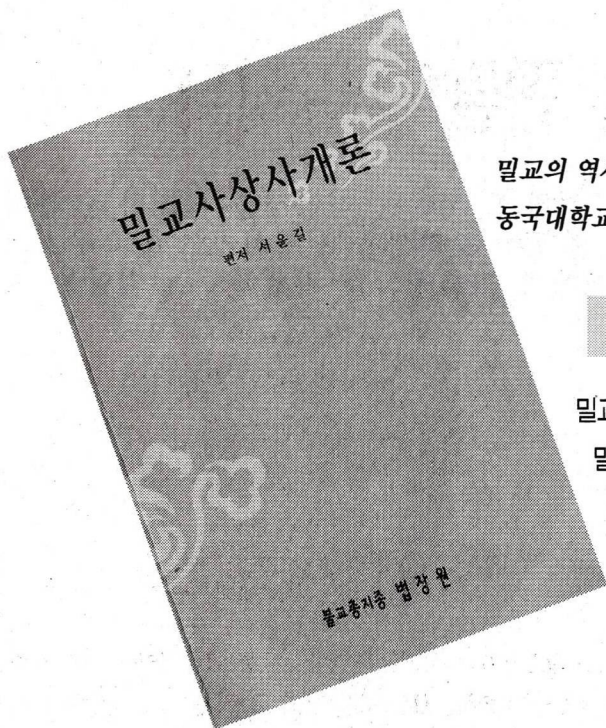
* 주의
고혈압, 목디스크, 녹내장, 안구이탈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피하도록 한다.

따라하기



1.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양손으로 팔꿈치를 감싼다. 자신에게 맞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중심을 잡기 위함이다. 체중은 팔 앞으로 실는다.
 2. 팔을 감싼 손을 꿇고 깎지를 낀 후, 앞에 놓는다. 이때, 팔꿈치는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머리의 뒷부분을 깎지 낀 손바닥 안에 넣으면서 정수리 부분을 바닥에 댄다.
 4. 손과 양 팔꿈치를 삼각형으로 만든 뒤 무릎을 바닥에서 들면서 팔꿈치로 세운다.
 5. 4의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엉덩이를 치켜올린다.
 6. 머리와 팔로 중심을 잘 잡으면서 발끝을 천천히 머리쪽으로 가깝게 가져온다. 목은 앞이나 뒤로 휘어지지 않고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엉덩이를 당긴다.
 7. 무릎을 굽혀 가슴쪽으로 당기면서 서서히 발을 바닥에서 떼다. 무릎을 들어올리는 동작은 절대로 급히 해서는 안된다.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이다.
 8.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복부근육과 허리힘을 이용해서 천장을 향해 다리를 위로 들어올린다.
 9. 서서히 다리를 곧게 편다. 다리에 힘을 빼면서 팔로 중심을 받치면서 유지한다.
- 너무 오래 있을 필요는 없다.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3~5 분 정도 유지했다가 역순으로 자세를 풀어 아기가 자세로 이완시킨 후 2~3 회 정도 해주면 좋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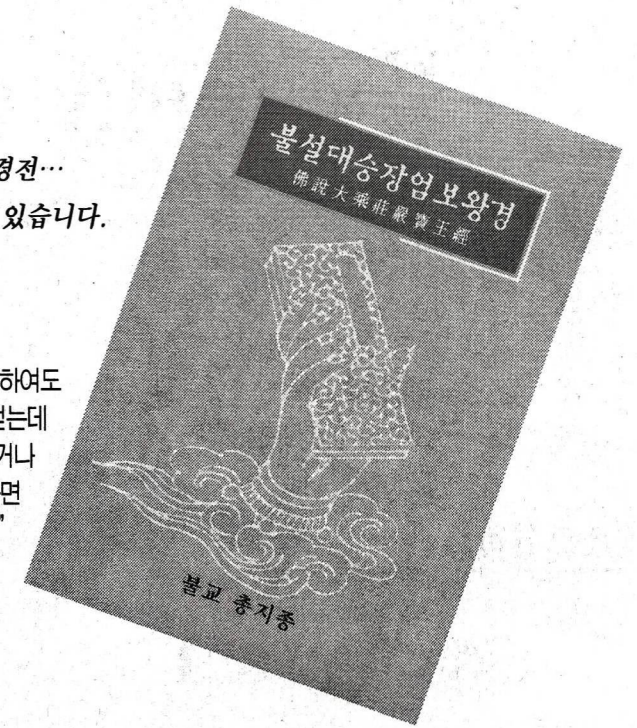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사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오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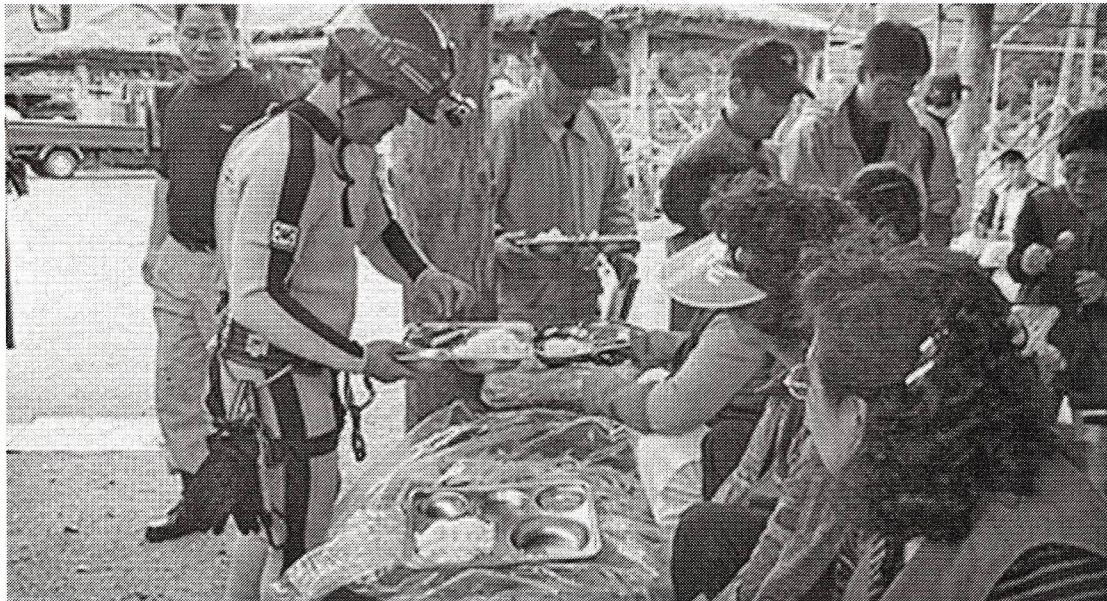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중

Tel: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불교계, 수재민 자원봉사 선도적 역할 종합상황실운영, 체계적 자원봉사활동



불교계 단체들이 수재민들기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많은 피해를 준 대재난이다.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는 우리나라의 지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난을 극복하는데 동참한 불교계는 수없이 많은 성과와 교훈을 얻는 실로 중요한 경험을 하였다. 수해현장에 월정사가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월정사는 수해가 일어난 다음 날인

16일부터 줄곧 하루 앞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학생과 스님 등 50여명과 함께 자원봉사단을 구성, 침수 피해를 본 진부초교와 인근 침수 가옥에 투입, 평창 수해현장에서 자원봉사의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서울의 봉은사를 비롯한 조계종 주요사찰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수해 희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개설하였다. 서울의 봉은사 역시 이에 적

극 부응하여 17일과 18일 현지 조사반을 급파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19일부터 매일 아침 6시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미 월정사가 진부사내에 상황실을 개설했지만 아직 상황을 총괄하지 못한 상태. 봉은사는 먼저 해당 지역에서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료급식소를 개설하여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재해대책 본부를 진부중교에 설치하여 종합상황

실을 개설하고 급식과 자원봉사자 인력배치를 시작했다. 20일부터 가동된 종합상황실은 자원봉사자의 접수와 배치, 구호물품의 접수와 전달을 담당하는 통제센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고, 수재민과 자원봉사자의 급식소가 정착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통제하게 되었다. 두서없이 움직이던 구호활동도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진부지역의 상황을 총괄하는 센터가 되었다.

또한 월정사와 봉은사가 파견한 굴삭기와 덤프트럭 10여대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복구가 급히 필요한 곳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종합상황실이 운영되면서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월정사가 지역 상황을 총괄하고, 봉은사가 교계에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파악과 배식을 담당하였다. 상황실은 매일 아침 봉사 인력이 필요한 지역장의 요청을 접수하여 봉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매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봉사자의 인력 배치를 담당하였다. 아울러 적

십자사와 해당 지역 관공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진부지역의 수해 복구와 자원봉사는 불교계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었다.

전국 각 사찰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동국대 병원 등 불교 관련 기관에서 매일 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고, 주말에는 1천 명이 넘는 불자들이 수해복구 지원활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그 규모도 크지만 활동 역시 노력봉사, 급식봉사, 의료봉사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지역 민심은 물론 지역 관공서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 놓았다. 사찰 자원봉사자들의 복구활동을 지켜본 수재민들은 '이제부터는 절에 다니겠다'는 인사와 함께 불교계의 지원활동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진부중교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총무원장 지관스님, 지역 국회의원과 조계종 총회 의장 스님 일행 등의 방문이 이어졌으며, 지역 관공서와 군부대 수해복구 책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서주석 신임 청불회장 취임법회 봉행 “국민과 불자 지키는 든든한 불자회 되길”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수석 비서관이 지난 7월 12일 제10대 청와대 불자회장에 취임했다.

청불회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각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청와대 불자회장 취임법회에는 지관 스님, 기획실장 동선스님, 호법부장 도진



서주석 신임 청불회장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성 정사, 총지종 우송 통리원장, 문광부 김장실 총무실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명호근 수석부회장, 손안식 부회장, 열린우리당 이태희장 운영회 의원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서주석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과 불자들이 청와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호국불교의 전통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신념을 바쳐 바른 실행할

등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모인 청와대 불자회가 새로운 회장을 맞게 됐다.

북한 미사일 문제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도 불자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들을 편안케해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을 잘 모시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불자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인재 키워 불교 미래 연다” 불교인재개발원 설립대회 인재뱅크 구축, 광역·기초단체 그룹 조직 등 사업 전개 예정



불교인재개발원은 불교인재개발을 위한 설립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불교 인재개발을 위한 큰 걸음이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은 지난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관 공영장에서 설립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서울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설립대회는 황경환 이사(울산광역시신도회장)의 경과보고, 박은훈 상임고문(前 환경처 장관)의 인사말,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의 환영사, 도영 스님 치사, 이해봉 국회 정각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도영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서양 사회 지도층은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 반대다. 이것은 우리 불교계가 인재 육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며 “불교 인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경만 이사장(前 전남도지

사)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며 “빛을 끄는 심정으로 불교인재개발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립대회에는 또 이인자 이사(경기대 명예교수)의 CI 발표, 김용철 원장(중앙승가대 교수)의 전략계획발표와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개달음과 실천은 하나 △응무소주 이생기심-공심으로 원력 실현 △수처자주 임처개진-주인으로 살기 △사대서원-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등 불교인재개발원 사명서도 발표됐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전문강사 및 불교인재양성, 불교 오피니언 리더그룹 3000명 인재뱅크구축, 16개 광역단체 및 230개 기초단체 그룹 조직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태고종 봉원사 연꽃축제 개막 선암스님 사진전, 연잎차 시음행사

“연꽃은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기어도 오염되지 않으며, 음금은 즐기는 속이 비어 밖과 통하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가 없습니다.

또한 향은 멀수록 맑고 우뚝 선 모습은 멀리서 바라볼 일이요, 너무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연꽃이야말로 꽃 중의 군자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7월 25일 낮 12시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 특설도량에서 펼쳐진 ‘제 4회 서울 연꽃축제’에서 북송 때 학자인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愛蓮說)’을 인용해 범문

했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시연에 이어 연꽃축제를 알리는 법회가 이어졌다.

이번 축제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불생불멸의 자생력과 정화력을 지닌 연꽃을 통해 인간 본성을 발현하여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봉원사를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개방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법회가 끝나자 불자와 시민들은 대웅전 앞에 마련된 수련, 백련 등 3백여종의 연꽃을 감상하

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포동에 온 청송심 보살(45)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꽃과는 달리 해마다 보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청정해 지는 것 같습니다”며 연꽃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연꽃감상 산책로가 조성되고, 만봉 스님의 작품전과 연꽃 전문 사진작가 선암스님의 사진전, 도예가 김학동의 차잔 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삼천불전 앞에서는 지리산 하동 야생차협회가 주관하는 ‘가정마다 차회반 심기’ 캠페인도 열리고 있다. 토·일요일에는 연잎차 시음행사, 전통다도시범, 연등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고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 3시~4시 : 태권도
-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주실 뜻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혜 : 010-3913-6352, 이혜숙 : 010-4737-9321

최해선보살의 전통사찰 문화탐방

최초의 비구니 강원 - 공주 동학사

갈길 바쁜 직장인들이 종종 발걸음으로 출근을 재촉하는 이른 아침, 서둘러 총지사를 출발하였다. 구름만 잔뜩 낀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천안 - 논산간 민자도로를 통과해서 정안 나들목으로 빠져나온 우리는 다시 32번국도, 23번국도를 번갈아 타면서 목적지인 동학사에 도착했다.

간간이 내리는 이슬비와 계곡의 운무를 타고 내려오는 시원스런 물줄기 소리가 우릴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야말로 환상적이라는 느낌이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동학사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처음 방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 없던 새로운 건물, 산책길, 자연학습장 등이 들어섰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 것처럼 생각되었고,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비 내리는 산사는 정말 조용하면서도 한적하기만 하였다.

동학사는 공주에서 약 25km, 대전에서 8km정도 떨어진 반포면 학봉리에 자리 잡고 있다. 계룡산 동쪽 골짜기에 싸여 있는 천년고찰 '동학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비구니 강원(일명: 승가대학)으로서, 150 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부처님의 일대시교 및 수행과 포교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받으며 정진하고 있는 유서깊은 도량이다.

또한 동학사는 문필봉(文筆峰)이 있어서 대강백들이 많이 배출된 곳으로도 유명하며 비구니 스님들의 경 읽는 소리는 맑은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와 하나로 어우러져 고즈넉한 산사에 청아함을 더해준다.

주변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 계룡산의 관광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특히 박정자 삼거리에서 동학사에 이르는 약 3km 거리의 가로수는 빗나무로 이루어져 봄이면 벚꽃터널이 장관을 이룬다. 93년부터 매년 동학사 봄꽃축제가 개최된다.

신라 성덕왕 23년(724)에 상원조사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던 곳에 회의화상이 창건하였다. 당시에는 문수보살이 강림한 도량이라 하여 절 이름을 청량사라 하였다.

고려 태조 3년(920)에 도선국사가 왕명을 받아 중창하였는데, 국사가 원당을 건립하고 국운을 기원했다해서 '원당'이라고도 불리우다가 그 후 영조 4년(1728) 신천영의 병화로 사원이 전소되어 80여 년 동안 빈 절터인 채로 내려오다 이조 순조 14년(1814)에 금봉화상이 옛 원당터에 실상암을 짓고 절을 중건하여 절 이름을 개칭하되, 진인출어동방(眞人出於東方)이라 하여 "동"자를 따고 사관국청학귀소형(寺版局靑鶴歸巢形)이라 하여 "학"자를 따서 동학사라 명명했다는 설도 있고, 또 계룡산 동쪽 사찰 입구에 청학이 깃들었다는 학암(鶴岩)을 위주로 하여 동학이라는 절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음을 얻어 한국의 선종을 드날렸다. 근대에서는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절의 건물이 전부 불타 없어졌다가 1960년 이후 서서히 중창되었으며, 지금도 일주문 불사 및 상원암(옛 계명장사로 남매탑이 있는 곳) 복원불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전각으로는 대



웅전, 삼성각, 범종각을 비롯하여 조사전, 육화당, 강설전, 화경헌, 업화실, 실상료, 숙묘전 등이 있다. 신내암자로는 미타암, 길상암, 관음암, 문수암, 심우정사, 상원암 등이 있다.

동학사에는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 있는 건축물이 있다. 동학사 경내에 들어 서려나 두 기둥이 우뚝한 홍삼문을 볼수 있는데, 이는 궁궐, 관아, 능, 묘, 원 앞에 세우는 문으로 사찰과는 어울리지 않는 30자 이상의 홍삼문이다. 이것은 동학사가 사원이면서도 경내에 유신의 사당인 동계사, 그리고 삼은각과 숙묘전이 있는 점들과 상호 연관된 인연들이 어우러져 세워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땅은 참으로 좁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같은 지역에서 같은 혈통끼리 같은 언어로 같은 제도와 풍습을, 그리고 같은 운명공동체를 지닌 채 그

토록 오랜 역사를 만들어온 국가는 드물다. 줄잡아 5천년의 연륜을 헤아린다.

그 역사의 연륜이 좁은 땅덩어리에 쌓이고 보니 우리는 국토의 어디를 가더라도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만나게 된다. 더구나 우리 불교문화 유물은 대부분 국토 박물관인 것이다.

전국 어디를 가도 빼어난 경치와 유물들로 가득하다.

그러기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계속 되어질 탐방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찰의 정엄함, 송고함, 그리고 존귀함을 전해 드릴 수 있기에 말이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나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다.

오늘 이 순간 서로 마음이 맞는 도반들과 함께하였기에, 어느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고즈넉한 법당 작은 연못에 피어난 수련과 비를 피해 신발장 속으로 숨어버린 고양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수가 없었다.

동학사를 둘러보고 나는 길에 작은 번머라도 벗을 수 있길 소망하면서 조병화 사인이 지은 한수의 시귀가 생각났다.

작은 들꽃

사랑스러운 작은 들꽃에
너나 내나 이 세상에겐 소유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소유한다는 것은 이미 구속이며 욕심의 시작일 뿐...
부자유스러운 부질없는 인간들의 일이었다
넋은 하늘을 보이라
그곳에 어디 소유라는 게 있느냐
출출 지나가는 바람을 보이라
그곳에 어디 애착이라는 게 있느냐
칠월 떠가는 구름을 보이라
그곳에 어디 미련이라는 게 있느냐
대양 서로의 고투는 생명을 감시하며,
대양 서로의 고투는 존재를 축복하며,
대양 서로의 고투는 인연을 오래오래 끊어지지 않게 기원하며,
이 고운 해후를 따듯히 해갈뿐..

이달의 사찰음식 ⑧

▶ 흑임자두부튀김



- 재료
두부 1모, 녹말가루 1컵, 식용유 3컵, 소금 1작은술, 설탕 2큰술, 물엿 1큰술, 흑임자 1작은술

- 만드는 법

- ① 두부는 가능한 한 단단한 것으로 선택하여 사방 2cm 가량의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소금을 약간 뿌려 간을 하고, 물기를 뺀다.
- ② 준비해 둔 두부에 녹말가루를 묻혀 섭시 180도 가량 되는 기름에 두 번 튀겨 낸다.
- ③ 냄비에 설탕, 물엿을 적지 말고 끓인 후 갈색이 날 때 튀겨 놓은 두부를 넣고 빨리 버무리 다음 흑임자를 솔솔 뿌린다.
- ④ 오래 두면 눅눅해져서 맛이 덜하므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 들깨생콩가루묵국수



- 재료
밀가루 2컵, 생콩가루 1컵, 물 2/3컵, 들깨즙 10컵, 애호박 1/2개, 표고버섯 4개, 청장 2큰술

- 만드는 법

- ① 밀가루와 생콩가루를 미지근한 물로 반죽하여 오래 치댄 다음 밀대로 알맞게 밀어서 채낸다.
- ② 애호박은 소금으로 간하여 볶고, 표고버섯은 간장으로 간을 하여 볶아 둔다.
- ③ 냄비에 들깨즙을 넣고 끓이다가 칼국수를 넣고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끓이다가 청장으로 간을 한다.
- ④ 완성되면 그릇에 담고 볶아 놓은 호박과 표고버섯을 곱명으로 얹는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함께 반죽하면 국수가 쉽게 퍼지지 않는다.

▶ 고갱이상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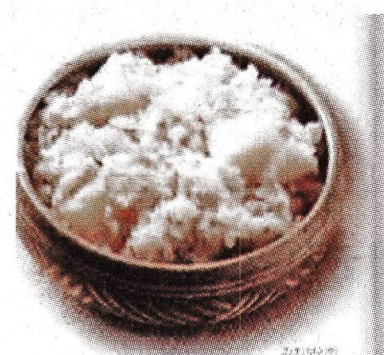


- 재료
대궁상추 200g, 밀가루 1컵, 된장 1큰술, 고추장 1큰술, 식용유 2큰술, 양념장(진간장 2큰술, 식초 1작은술, 깨소금 1작은술)

- 만드는 법

- ① 대궁이 오른 상추는 대궁의 껍질을 벗기고 방망이로 자근자근 두드린 후 씻어 물기를 뺀다.
- ② 밀가루에 된장을 으깨어 넣고 고추장도 함께 넣어 걸죽하게 반죽한다.
- ③ 팬을 달구어서 식용유를 두르고 상추를 밀가루 반죽에 적셔서 상우 머리 부분이 서로 반대되도록 놓고 노릇노릇하게 지지내어 양념장과 곁들인다.

▶ 감자보리밥



- 재료
감자 400g, 멥쌀 2컵, 보리쌀 1컵, 물 3컵

- 만드는 법

- ①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6등분 정도의 크기로 썰어서 찬물로 헹구어 건져 둔다.
- ② 보리쌀은 씻어서 꼭 무르도록 삶아 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 ③ 쌀은 씻어 30분 정도 불린 후 물기를 뺀다.
- ④ 쌀과 보리쌀, 감자를 섞어서 솥에 안치고 밥물을 부어 끓인다.
- ⑤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쌀알이 퍼지면 불을 약하게 하여 뜸을 들인 후 이 아래로 잘 섞는다.
- ⑥ 흥고추, 풋고추 씨를 빼고 굵게 다져서 진간장,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곁들인다.
*감자밥은 조리된장으로 비벼 먹어도 좋다.



그 뒤 고종 원년(1864)에 만화화상이 개창하였고, 그의 제자인 경허 성우스님이 고종 8년(1871)에 강의를 열었으며, 1879년에는 이곳에서 큰 깨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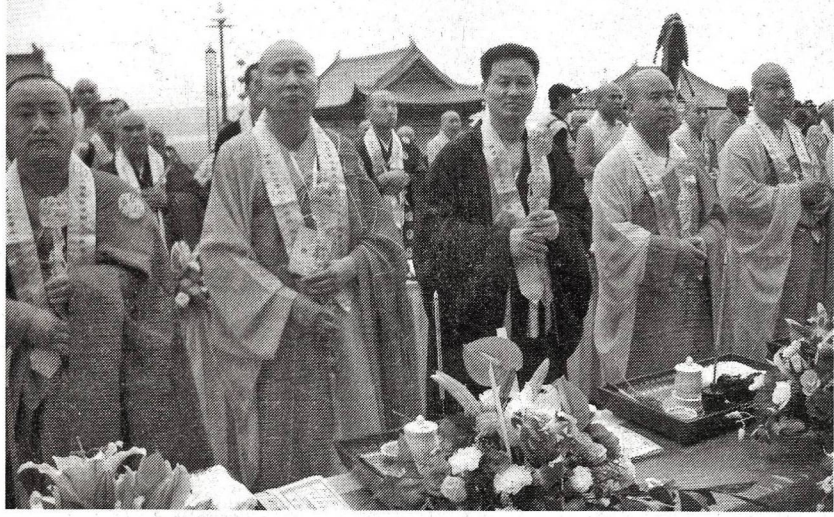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정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법 / 추 / 지 / 양 / 는 / 사 / 람 / 들 / 총 / 지 / 종 / 보 / 사

중국 송성사 개광 불사

총지종 화령 교육원장 종단대표로 참석



◇108 고승의 1인으로 개광불사에 참석한 화령정사.



◇송성사 삼탑.

중국 운남성 대리(大理)에서 중국 최대규모의 사찰인 송성사(崇聖寺)가 중창되어 개광법회를 가졌다. 지난 12일에서 14일 사이에 개최된 이 법회에는 중국 각지의 유명 사찰 방장 100여명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인도 등 18개국 해외 불교지도자 등 3000

여명이 참석하였다. 본 종단에서는 화령 교육원장이 중국불교협회의 초청으로 종단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특히 화령 교육원장은 중국과 해외에 본 종단이 한국의 전통밀교 종단임을 알리고 세계 108고승의 대열에 참여하여 종단의 위상을 드높였다.

송성사는 1200년 전에 창건된 사찰로서 최근까지 세 개의 거대한 탑만 남아 있었는데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복원되어 규모면에서는 중국최대의 사찰로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다. 특히 송성사 삼탑은 해발 4000미터의 창산(蒼山)을 배경으로 길이 40킬로미터의 바다와 같은 호수 이해(洱海)를 굽어보며 중국

에서 가장 유명한 탑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이번에 복원된 송성사는 천문학적인 중창규모는 물론 대대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광법회가 이루어져 중국정부의 불교에 대한 지지와 향후 불교정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법회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동해중 교직원 연수 및 친선교류대회

용인고등학교 친선 축구대회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교직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교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견문을 넓히는 교직원 답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6월 말에는 부산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직원 연수는 부산을 출발하여 호남지역인 전주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된 서해안에 위치한 변산반도, 덕산온천, 예산의 전통사찰인 수덕사, 국립운동기인 운봉길의 사 생가, 추사 김정희 선생 생가를 방문하였다.

교직원 연수는 부산을 출발하여 호남지역인 전주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된 서해안에 위치한 변산반도, 덕산온천, 예산의 전통사찰인 수덕사, 국립운동기인 운봉길의 사 생가, 추사 김정희 선생 생가를 방문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동해중 인근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 교직원간의 친

선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방향과 학습형태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였다.

친선대회에 앞서 박수현 동해중 교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류는 학생들의 진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자신이 진학을 하게 될 고등학교를 방문함으로써 낯설지 않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터전이 된다."며 "차후에도 교사들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동해중의 학습형태와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고등학교는 동해중학교 졸업생 100여명이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교류는 동해중 재학생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의미있는 행사이다.

나도 한마디

'사찰에서 연애를 한다?' 불교계에서 젊은 청춘 남녀들을 연결하는 교제 프로그램은 가족교제의 일환으로 적극 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최근 젊은 남녀들의 만남을 위한 미팅 행사가 전국 각 사찰에서 잇따라 열려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어 불교의 앞날을 밝히고 있다. 합천 해인사는 지난 7월 29일 음력 칠월칠석을 즈음해 '비로자나 데이 축제(Virojana Day Festival)'를 열었다. 지난해 해인사에서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의 쌍도끼 목조 비로

자불상을 기념하면서, 청춘남녀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유도하는 취지다.

서울 봉은사 역시 칠월칠석 행사로 지난 7월 30일 '견우와 직녀의 아

용하는 적절한 사례로 평가된다. 밀양 표충사 또한 지난 2월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미혼남녀 중심의 탑돌이 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2002년부터 미혼 불자들

된 특이한 사회현상. 관심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산사의 고요한 분위기에서 교류하다 보면 정서순화에도 이롭고, 자연스레 한 차원 높은 교감을 기대할 수 있다. 세간의 퇴폐 연애풍조를 계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물론 이성교제에만 치중한다면 결혼이벤트 회사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엄중한다.

그러나 사찰은 본래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수용해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공간으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남녀간의 만남을 조화롭게 이뤄간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정영섭)

남녀간의 교제 프로그램 '산사미팅'

롭다운 만남'이란 주제로 남녀의 건강한 교제를 돕는다. 칠월칠석은 알다시피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번씩 재회하는 날. 해인사와 봉은사의 행사는 사찰이 우리의 오랜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를 젊은층 포교에 활

의 짝짓기 행사인 연꽃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불교계의 새로운 코드로 '사찰남녀'가 떠오르는 추세다.

사실 사찰의 남녀간 교제 프로그램은, 연애라는 다분히 세속적인 코드가 성(聖)의 영역인 사찰에 접목

신행제험 32

조화와 마음의 의미를 깨닫는 찬불가



김정애 보살
(정각사교도, 만다라합창단 단장)

부산이 고향인 저는 20대 초반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다니던 중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일남일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간의 삶의 여정속에는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의 흔적이 없진 않았으나 내 가족과 주위의 모든 분들의 도움에

습니다. 서원당에 들어서면 즐거운 마음과 고마움으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며, 아낌없는 주위 보살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몸과 마음을 정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함이 많아 항상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주교 법사님과 여러 보살님들의 성원으로 합창단 단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함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어 새삼 부처님의 경건한 가르침에 머리 숙여지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합창단 단장으로 단순히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보다는 조화와 마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상업적인 기교나 전문성을 강조하는 여타의 모습과는 다른 구성원 개개인별로 높고 낮은 삶의 맛을 느껴왔던 그래서 더더욱 다를 수 밖에 없는 그 무엇을 불심이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과의 약속... 총지종 입교 불심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 노래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지금의 나를 돌아보곤 합니다. 제가 정각사에 입교하게 된 경우는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권유에 의해서였습니다. 어릴적 친정 부모님은 현교를 다니셨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영향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일정한 종교생활에 별다른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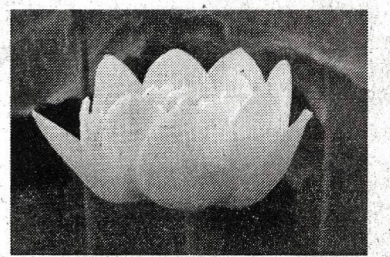
그러나 시골(경남 밀양)에 계신 시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장남이자 외동인 저의 남편이 부산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큰 시누이와 함께 정각사에 입교하시어 돌아가실 때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의 결정을 때로는 석가탄신일, 창교절에 참석하고 연로하시어 불편한 시어머님의 행차에 보호차로서 정각사에 다니곤 하다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인 저에게 당신께서 이제 더 이상 정각사에 다닐 수 없으니 앞으로는 제가 대신 다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님의 49제 회향일에 총지종을 잘 모르는 저에게 법공 정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49일 동안 수고하셨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는 말씀과 시어머님과의 약속에 따라 인연을 두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라는 마음이 들었

이 합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이 우리 합창단으로 하여 매주 정기 수요일에 합창단원들의 성실한 찬불가 연습으로 팔관회를 비롯한 부산지역의 다양한 불교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결혼식엔 성혼찬가, 49제 회향일엔 열반가와 조가로서 여러 보살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음성공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단장으로서 우리 합창단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이 더욱더 정진하여 여러 보살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평소의 후원에 아낌없는 배려와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각사 주교님과 신인록 지회장님, 신정희 황은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보살님들께 이 글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합니다.



염주를 수지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주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인력을 얻게 되는 첩경이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데 알맹이 되도록 도와주는 범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영험까지 지니게 되며, 악한 지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내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은사 염주

알이 둥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 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

천축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우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지기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축 54과 염주 ₩20,000

부처님 법이 진리임을 믿는 확실한 믿음

부처님처럼 수행하는 수행자, 부처님 법이 진리임을 믿고 생활하는 자비스런 모습속에 풍겨나는 청아한 모습.

절대무구의 청정함을 지니며 생활하고 있는 만보사 이경순보살, 모진 비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푸르름을 유지하며 수행생활하고 있는 총지사 한상욱, 한연숙보살을 찾아 가본다.

오려려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오려려 어려움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보살님의 모습 속에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증득한 삶의 철학이라 할까, 아니면 지혜라고 할까? 영문을 알 수 없는 묘한 신비함을 느끼게 한다.

"어머님께서 불공을 하시기에 우리들은 어머니를 의지하며, 어머님께서 불공해 주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어머님께서서 표류하는 배의 앞길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셨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글썽인다.

이러한 모녀의 모습 속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정의 힘이 어떤 것인지? 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전에서 한정수 각자님과 같이 생활하시는 이경순보살은 노구인 몸에도 불구하고 불공하시는 모습은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대단하다.

부처님의 법을 생명으로 여기며 생활하기에,

단란하고 따뜻한 오누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녀와의 만남, 만보사 이경순보살과 총지사 한상욱, 한연숙보살은 총지중에서 수십년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로 경오생인 이경순보살은 1956년 왕십리에 위치한 진각종 심인당에서 출발하여 총지종 창종과 함께 총지중에 입교하여 수 십년을 진언행자로서 수행하고 있다.

3남 4녀를 키우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하시는 수행자로서 생활이 저절로 배어 나온다.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계시기에 자녀들도 진언행자로서 생활하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부처님의 법과 진리를 믿으며 수행하고 있다.

"부처님이 계시기에 감사함을 느꼈고, 행복함을 느꼈다."고 말한 모녀의 이야기속에 이들의 신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수행자의 모습에서 저절로 나타난 현상일까? 이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청아하고 순수한 마음, 따뜻한 그대로이다.

"부처님의 법을 믿고 생활하기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삶의 충전과 활력소를 얻고 든든한 부처님이 계시기에 생활함에 있어 용기가 생긴다."고 한다.

수행자로서 매일 불공하시면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라는 물음에 보살님은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오로지 부처님 법만을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어렵고 힘든 일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정시, 정송, 절량속에 무량의 공덕이 생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에 눈이오나 비가오나 변하지 않고 독아청정 푸르름을 간직하듯 항상 염주를 손에 들고 불공하시는 모습은 모든 자녀들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자녀들이 총지종의 법을 믿고 열심히 수행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보살님은 "여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보다 단 한 가지 부덕을 많이 닦아서 한 가정의 운전대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가 가정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고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자주 불공의 공덕을 이야기 한다."며 씩스름함을 감추지 못했다.

항상 겸손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법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보살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하게 되었다.

3남 4녀 중 한상욱, 한연숙 보살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하루도 거스름없이 불공하며, 월초나 불공기간에는 반드시 서원당에 나와 불공

한다. "학창시절 매일 불공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라는 질문에 "매일 매일 저희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불공해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하는 보살님들을 보면서 인연의 신비함과 불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경순보살에게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얻은 수행의 방법이나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세상을 살다보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옛말에 '뿌린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지은 대로 반드시 받기 때문에 하루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극락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양심에 부끄러움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항상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맞이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준다. 우리가 힘들게 불공

하는 만큼 얻은 것도 크다는 사실을 믿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제가 얻은 공덕은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공덕은 막내 아들이 아파서 생명이 위박하였을 때 부처님의 은덕으로 무사히 쾌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해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부처님 공덕의 신비함을 찬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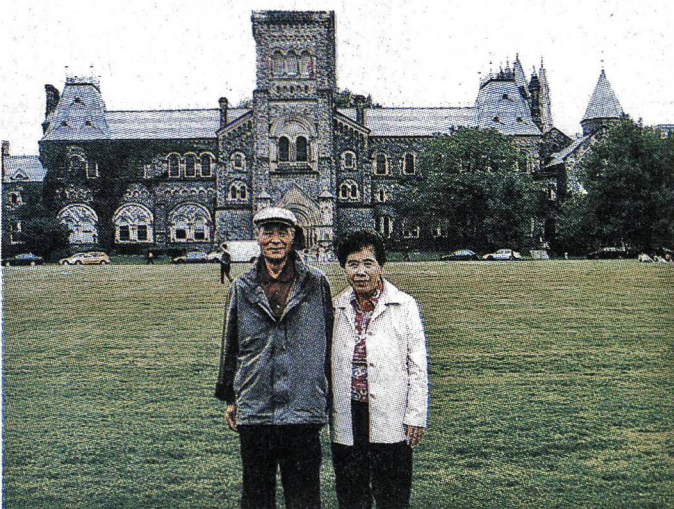
그리고 종교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은 믿음! 확신! 임을 강조하였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이룩할 수 없다. 우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부족하며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이 부족하니 당연히 소원성취도 이루어 질 수 없기 마련이다."며 "믿음은 모든 행의 근본이며, 바탕이기에 변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리는 정시, 정송, 절량이며 이 세가지의 공덕은 한량이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지금 당장 무엇인가? 보아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부처님의 진리를 의심하고 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정시, 정송, 절량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모녀의 따뜻한 마음과 부처님 같은 자비심을 느끼며 새로운 종교관을 가지게 되었다.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지경 경사



이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

풍(豊) 원(元)

어린 시절 어머니의 옛 맛과 정성이 그대로 깃들여 있는 곳

FOOD 전문점

풍원 (豊元)

이구찜·탕
간장게장
꽃게찜·탕

34C



진정한 웰빙이란 자신의 마음이로부터 바꾸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평소 소홀히 했던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노력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면에서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식생활을 바꾸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 역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실천의 한 방법입니다.

풍원은 진정한 웰빙문화의 식생활을 창조합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4, 방이역부근
전화 : 02-3401-5919
대표자 : 총지사 한상욱 보살